

총 21회 정기공연  
해기산서

총 21회  
해기산서

2011  
전통과 함께 하는  
창작 춤  
古&G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경성대학교27호관214호 무용학과사무실  
공연문의 : 010-4547-4761

I일시: 2011년 7월 27일(수)-7월 28일(목) 오후8시 I장소: 부산문화회관소극장

I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S부산문화재단 부산은행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I협찬: 사상예수온천레포츠 맥컬트레포츠클럽



# 춤 배김새

연혁

1985. 12월 춤패 배김새 창단

2005년 이전 중략

- 2006. 해운대 해맞이 공연 참가 청수한동이
- 2006. 춤패 배김새 여섯번째 옛 춤판 - 동래학춤, 춘앵전, 탈춤, 진주교방궁거리
- 2006. 대마도 아리랑 축제 참가 - 부채춤, 살풀이, 장고춤, 진도북춤, 오방신, 장무, 춤 바라
- 2006.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 최은희와 춤패배김새 공연
- 2006. 조선통신사행렬행사 - 용두산 공원
- 2006. 창무 한국창작춤 메소드 12번째 공연 - 최은희와 춤패 배김새
- 2006. 제18회 춤패 배김새 정기공연 - 몸~부림, 이름 없는 수초들의 노래
- 2007. 춤패 배김새 (솔리스트전)- 이현정, 김경아, 안주현
- 2007. 문화의 달 한민족 예술교류전-배김허튼춤
- 2007. 제80회 우리춤 문화한마당
- 2007. 생명평화 천지궁 9번째 민족통일 대동장승한마당
- 2007. 2007 대마도 아리랑 축제-대마도 이즈하라항 특설무대
- 2007. 제18회 배김새 정기공연 하연화의 푸른눈물 -해운대문화회관
- 2008. 우리가락 우리마당 -용두산공원
- 2008. 2008 대마도 아리랑 축제 - 대마도 이즈하라항 특설무대
- 2008. 부산국제 합창제 - 천둥소리/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2008. 제19회 배김새 정기공연-한수정, 안주현, 김경아/예노소극장
- 2008. 새물결 동인춤 모음전 -김경아[장미,그가시름품다]/부산문화회관중극장
- 2009. 조선통신사 납시오-오방신장무/서울 명동
- 2009. 해신제-물맞이굿, 소고춤/부산 동구 영가대
- 2009. 조선통신사 문화축제 퍼레이드/용두산공원-광복로
- 2009. 조선통신사의 밤-배김허튼춤/용두산공원 특설무대
- 2009. 대마도 아리랑 축제/이즈하라항 야외특설무대
- 2009. 2009 시모노세키 조선통신사 축제/시모노세키 시민회관
- 2010. 우리가락 우리마당/용두산 공원
- 2010. 금정산 생명축전 참가
- 2010. 춤패배김새 25주년 기념공연
- 2011. 조선통신사 한일춤/전별연/퍼레이드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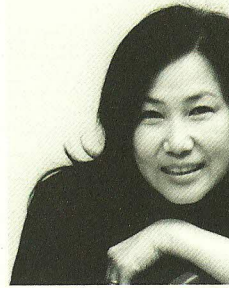
## STAFF

총감독: 최은희 / 예술감독: 정미숙 / 대표: 하연화

출연: 하연화, 손미란, 한수정, 김정원, 남지원, 조은정, 안주현, 박수정, 정은주, 김영경, 양한나, 최연순, 우진수, 이사론

조명디자인: 이찬우 / 조명: 이현무 / 무대감독: 박세준

총괄진행: 박성호 / 진행: 강보라, 이혜경, 김민지, 서수정, 장서윤, 심소민



춤패배김새 총감독  
최은희

현재의 무용계를 보면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는 듯 하다. 전문 무용인의 인프라가 미비하고, 신진 무용수 육성이 절실하다. 그나마 소수로 존재하는 무용인들을 수용하는 지역적 토대를 단단히 해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 스물여섯해를 맞이하는 춤패배김새의 무대에서는 언제나 창작이라는 명분아래 아이디어에 의존하기 이전의 충실한 춤의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 개개인의 기량은 물론 항상 전통춤에 대한 올바른 계승을 위해 고민하고 오늘의 삶과 공감이 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인으로서의 비판의식과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춤패배김새 정기공연의 무대의 의미는 새로운 불씨를 짚히는 출발점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창작춤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는 무대를 꾸며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쳐나가길 바라며 부산문화발전을 위한 조그만 샘이 되었으면 한다.

춤패 배김새는 꾸준히 우리 춤 뿌리 찾기와 우리 전통 춤을 토대로 하는 많은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25주년을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활발하게 작업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의 단원들과 중견 단원들이 한 무대에 올라 배김새를 재충전하고, 우리 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됨은 물론 부산에서 처음 생겨나 26년이라는 세월을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춤 단체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하고자 오늘의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춤의 원형을 재현하는 전통춤과 그 전통을 이해하고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재조명해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창작 춤은 안무자 개개인의 개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춤 언어와 호흡이 나올 수 있는 신선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보다니은 무대를 위해 땀 흘린 창작 춤 안무자들과 무용수들에게 감사하고, 젊은 세대 단원들을 위해 전통춤을 함께 해준 중견 단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운 날 춤패 배김새 공연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행운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춤패배김새 대표  
하연화



## 진주교방굿거리춤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하연화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사)한국무용연구회 이사

궁중교방 계열의 춤으로 한국 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춤으로서 독특한 어깨 짓과 더불어 차분하면서도 은은하며,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무태로서 정·중·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진주교방굿거리춤은 내가 전통춤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전통춤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어준 춤이다.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이 춤을 춰오면서 나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고, 스스로도 무대에서 가장 편하게 관객과 호흡하면서 추는 춤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무대도 진주교방굿거리춤이 관객에게 편안하게 다가갈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 皎 (달빛 교) 안무 박수정

모든것이 끝나고 내가 정말 나로 돌아오면  
나도 몰래 외로움에 눈물방울 흠쳐내보지만  
혼자라는 쓸쓸함은 흠쳐낼 수 없고  
문득 고개들어 하늘을 바라다 보니  
달빛만은 변치않고 환히 날 비추고 있었고  
생각해보니 달빛이 날 비취줄때면  
내 발아래 그림자는  
언제나 나의 외로움을 나누고 있더라...

### 작품의도

진주교방굿거리춤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춤의 신비로움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춤이라는 것이다. 진주교방굿거리 특유의 긴 팔선과 화려한 손목놀음 등을 이용하여 무대위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기생의 삶을 무대위 화려함과 공연 후의 허망함, 쓸쓸함을 가지는 우리네 삶으로 대신해 나타내 보고자 하였다.



박수정



정은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학 조교



한수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이수자  
한퍼포먼스 컴퍼니 대표

## 처용무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이자 한국춤으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춤이다. 한국의 정재무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처용무에 담겨져 있는 한국의 고유한 정신사상과 자연적, 인류학적 가치도 인정 받은 쾌거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처용설화의 이미지를 벗어나 처용무에서 보여지는 근엄함과 관대함, 절도 있는 춤사위는 무대를 휘어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처용무에 대한 본인의 믿음과 신념이며, 춤으로 한층 돋보이는 무대가 되리라 여겨진다. 오늘의 무대는 오방처용무가 아닌 황색 복식의 처용무 독무를 선보이고자 한다.

## 얼레리꿀레리 안무 남지원

관용을 상징하는 처용과는 다르게 누구도 달리의 안타가운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다.

달리는 사람들에게 그저 손가락질 받는 연인내로만 보여질뿐 달리에게는 눈물도 하소연도 용서 받지 못한다.

하지만 달리도 분명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저 지아비를 버린 바람기 많은 여자가 아닌 누구도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도

나는 달리의 마음을 보고 싶다.

달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

### 작품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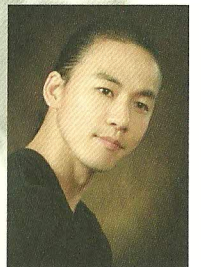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 즐거움, 슬픔, 외로움 등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나가는 과정이 그 옛날 처용의 이야기만은 아닌듯하다. 헤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제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가 흐르고 흘러도 용서받지 못하는 처용의 부인 달리의 마음도 우린 알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작품은 만남과 그 만남을 그리워하며 그 그리움으로 성숙해져 가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 보고자하며, 궁중무용 처용무와 탈놀음 움직임과 형식을 빌어 창작화 한다.

음악: 이세호



남지원

효성카톨릭대학원  
디자인학부 수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오진수

문화예술사회적기업  
'태화루예술단' 예술감독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이수자



## 학춤



손미란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학춤은 한량들이 즐겨 추었던 덧배기춤의 한 유형이며 놀이를 좋아하는 춤꾼들이 추었던 놀이마당의 춤과 사랑방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독립된 춤으로 형성되었다 본다. 이 춤은 비록 민속춤이지만 한량들에 의해 즐겨 추었던 춤이기 때문에 기품과 격조를 겸비한 정, 중,동이 잘 표현된 가장 인간적인 멋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춤의 특징이다. 춤사위에서 풍기는 청초하고 소박한 멋에서 고고하고 여유로운 무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도포의 역동적인 활갯짓으로 도약해 착취하는 배김사위는 마치 학이 땅으로 힘차게 내려 앉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조금의 여유도 없이 바빠 살아가는 현실에,..... 인간의 본질 유희를 무학의 여유로움을 통해 느끼고, 깨우고, 일으켜서 공간 여백의 아름다운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 당고싶다 안무 조은정

나를 보는 그들의 시선  
그들을 보는 나의 시선  
나를 외면하는 그들의 시선  
너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들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  
너를 외면하는 그들의 시선  
너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너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당고 싶다 당고 싶다

당고 싶어 바라 본다  
당고 싶어 따라 한다  
당고 싶어 닮아 간다  
당고 싶어 되어 간다

결코 당을 수 없는 너를

## 작품의도

황새의 청초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소박한 움직임으로 표현한 것이 학춤이다. 이 작품에서는 황새의 움직임을 춤으로 재해석하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황새의 이미지인 환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환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당기를 기대하지만 당을 수 없는 것이기에 환상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나에게 화려하고 우아한 움직임은 환상이지만 나는 나로 존재하기에 흉내낼 수는 있지만 환상에 당을 수는 없는 것이다.



조은정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학 수료



최연순

그랑발레 단원



김정원

춤소리예술단 대표

## 태평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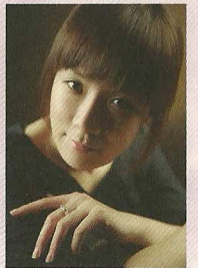
한 포기의 난에 비유하고 있는 이 춤은 화려하지 않고 은근한 향기를 뿜어내는 단아함과 정갈함에서 오는 춤의 멋스러움을 느낄수 있는 춤이다. 왕과 왕비 그리고 태평성대 하기를 축원하는 춤으로서 의상에 있어서 궁중왕비 복식인 당의를 착용하고 경쾌하며 가볍고 절도 있게 몰아치는 진쇠장단을 바탕으로 빠르게 밟는 발디딤새가 장단사이를 경쾌하게 가로지르는데 이 춤의 묘미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함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분들의 가정에 태평성대 하기를 꿈꾸며 춤을 추고자 한다...

## 파도위의 사과 안무 안주현

화려한 파도가 무녀가 입은 수십개의 치마폭처럼 일어나다 사라진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디디고 갔지만 아직 누구 하나 남은사람이 없는 바닷가 사과만 출렁이는 파도를 담아 표류하고 있었다.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사과이던가 이브가 몰다 버린 그 사과이던가 뉴턴이 바라보던 그 사과이던가 한낱 기계에 그려진그 사과이던가 파도위에 사과가 떠 있었다. 화려한 파도가 수십결로 일어나다 사라진다. 사과를 머리에 얹힌 바다가 꿈틀된다.

## 작품의도

태평무의 치맛자락을 파도에 비유하였다. 왕과 왕비가 태평성대를 기원하여 춤을 춘다는 것에서 희생성을 떠올리게 되었다.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요즘세상에서 아직도 당연히 희생하는 모든자 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마음에 사과와 당연히 여자라서 희생하는 것에서의 이브가 지게 된 원죄의 사과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애플사의 사과 세 사과의 재미난 연결성을 떠올려 오브제로 두게 되었다.



안주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Road to People 회원



김영경



양한나